

【 국내금융 뉴스 】

정부, 공동검사로 환율방어 움직임

□ 한은과 금감원은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해 10월 19일부터 11월 5일까지 특별 외환공동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우회적인 환율방어의 움직임을 나타냄.

- 금번 검사는 지난 6월13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특히,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제도*가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바, NDF거래**를 포함한 선물환포지션 추이 및 세부거래내역 등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임.
- 이러한 검사는 일상적 검사로 보일 수 있으나 최근 미국의 양적 완화로 달러가 국내에 많이 들어와 원화가치가 급등한 데 대한 당국의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도 대두됨.

*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은행은 전월말 자기자본의 50%, 외은지점은 250%로 설정하되,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포지션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임.

** 역외선물환시장(non-deliverable forward)은 주로 홍콩·싱가포르 등에 형성된 시장으로, 자국의 규제를 피해 조세·행정·금융 등에서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타국에 형성된 선물환시장을 말함.

□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실태파악과 외국환은행의 외국환거래법령 준수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임.

- 제도도입이후 선물환포지션 증감추이 및 거래내역, 외은지점 채권투자의 해외본점으로의 이전 등 우회거래 여부, NDF 포지션 증감추이, 거래내역 및 거래행태 파악 등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실태파악이 계획되어 있음.
- 포지션한도관리 및 NDF 거래내역 보고의 적정성, 유예기간 중 포지션관리의 적정성 등의 외국환은행의 외국환거래법령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임.

□ 검사 결과는 제도운영 및 정책수립에 참고하고 은행의 위규사항 확인시 관련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임.

- 최근 선물환포지션 상황, NDF거래를 포함한 선물환 거래내역 등을 감안하여 검사대상 은행을 선정하며 금번 검사에서 제외된 외국환은행에 대해서도 추가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고, 위반한 은행에 대해서는 법적제재에 나설 방침임.

(한은·금감원 외환공동검사 실시 등, 한국은행 등, 10/5)